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 The JeonBuk Times



2025년 9월 22일(월) 제 3176호

# 전북 청년 4년간 3만명 이탈 "정책으로 돌파"

#### 청년유출매년8천명'심각' 일자리·주거등5대집중지원 활력수당 등생활밀착형 정**책** 정책협의체로청년체감도높여

최근 4년 간 전북 청년 3만명 이상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전북자 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조명하며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 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 역 청년 인구는 해마다 평균 8천여 명 씩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위험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 유출 과 저출생 고령화가 맞물리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전 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익산시를 포함 6개 시군은 소멸위 험진입 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 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 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 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 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 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5대 정책 분야



추석 택배 터미널 현장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관영지사가 지난 19일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에서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 을 보고 받고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 및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 리 매칭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 고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 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완

며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도 지급하고 있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 양한 참여 기회도 마련돼 있다. 청년정 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 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고,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해 청 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책 추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소 치단체 정책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됐다. 일자리·주거·역량·참여·정주 여 건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시군-청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주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 용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 책을 지속 확대하고, 청년이 전북에서

# 전북도, 차기 도금고 선정 돌입

#### '지역기여형지표' 평가 첫 반영 2026년부터 4년간도재정관리

〈속보〉 전북도는 현행 도금고 약정기 간(2022.1.1.~2025.12.31.)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도금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

지난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금고 선 정은 도민에 대한 도금고의 역할 강화 를 목표로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평가 요소에 새 롭게 반영했다.

신규 금고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이며, 각종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 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는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개모 집을 통해 선정되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지원 가능

제1금고는 은행법상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상 은행과 함께 지방회계법 기 준을 만족하는 금융기관(농협, 새마을 금고, 신협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운용 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 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는 제 2금고로 결정된다.

전북도는 19일 신청 공고를 시작으 로 오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 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 친다. 11월 중에는 최종 선정된 금융기 관과 계약 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금고는 도 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 민 이익과 안정적 재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겠다"고 말 했다.

/장정철 기자



#### 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 건축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으 중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광역자

#### 정부·부처와 정책 한 데 모아 조율 해수유통 확대·조력 발전 논의 "전북 균형발전 도약의 열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 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 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 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 원 등 전북 국회의원 7명이 공동주최하 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의지가 담겼다.

이날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 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 된 모든 부처와 기관도 함께했다. 부처 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공간에서 조율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 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 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필요성을 꾸 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 보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된 뒤 국정과



안호영, 전북 국회의원 7인과 새만금 조력발전 토론회 주최

안호영 의원

한 안 위원장 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에 '새만금 조 력발전 기본 구상'예산을 반영시키는 등 으로 조력발전

제로 확정된

사업이다. 또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시화

호 조력발전의 성과와 조력 확대 가능

성 ▲새만금호 의 수질 현황과 지속가 능한 관리 방안 ▲ 수질개선, 전북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새 만금호 관리수위 현실화 전략 등을 주 제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의 성 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각 부처 의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 과 재생에너지 공급은 물론, 전북에 일 자리와 어민 소득, 생태관광까지 창출 하는 미래 산업으로 전북이 균형발전 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 /서울=김영묵기자

# 道,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제출작 건축허브시스템활용디지털심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축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길종합건축사사무 소이엔지와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 소가 공동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는 ICT 기반 내수면 양식 교육·창업을 원 스톱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설로, 청년 어업인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 표로 한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 해 김제시 백산면에 본관동, 합숙동, 연 구실습동, 임대형양식장 등 9,510㎡ 규 모로 건립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7월 10일 공고 이후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6개 작품이 접 수됐다. 9월 15일 발표심사를 통해 당 선작이 결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 에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 비스 허브를 활용한 디지털 심사 방식 을 도내 최초로 도입해 공정성과 효율 성을 높였고,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실 시간 중계됐다.

당선작은 대지의 높낮이 차이를 자연 스럽게 활용해 건물을 배치하고 단면 을 계획한 점, 공간 간의 연결성과 독립 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구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사업의 정체 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점 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출향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고향과 함께 성장' 투자 협력의 장 새만금산단·부안농공단지 등방문 후속 투자 상담 추진 · 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달 19일부터 20 일까지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 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출신 기업인들이 참석해 고향의 발전 비전과 새로운 투 자 기회를 모색했다.

국가산업단지, 수변도시, 농공단지 등 핵심 투자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발전 상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전북 의 산업 인프라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출향기업인들과의 네트 시간을 가졌다.

방문 ▲새만금 33센터·수변도시·국가 력 양성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기업지

산업단지 현장 시찰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 ▲전북 발전 방향 자유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참프레 (부안 제2농공단지) 방문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탐방 ▲군산 근대화거리 이 성당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 어 출향기업인과 지역 간 지속적인 협 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구 참가자들은 전북이 추진 중인 새만금 축, 국내 최초 피지컬 AI 도입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트워크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개별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 워크를 강화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는 맞춤형 지원책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향기업인들의 고향 투자 의지를 실현 첫날 일정은 ▲다산 DTS 군산사업장 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입지 지원, 인



전북도는 지난 19일과 20일 새만금과 부안 일원에서 출향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로 구축된 네 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원정책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명한 만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

당한 기여가 기대된다"라며 "인프라 확 양선화 전북자치도 기업유치과장은 충, 규제 완화,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전북 출신 기업인들이 지역 투자와 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고향에서 새로운 용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익산시·한국동물용의약품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글로벌 동물헬스케이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 전북,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포럼 성료

####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 참석 4단계 클러스터 사업 비전 공유

일까지 이틀간 익산 웨스턴라이프 다. 호텔에서 익산시, 한국동물용의약 품평가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이 성황 리에 막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민선 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병곤 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을 비롯해 녹십자수의약품㈜, ㈜중앙백신연구 소, ㈜케어사이드, 한국썸벧㈜ 등 국 내외 동물용의약품 기업 23개사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신 글로벌 동향과 전략

의가 이어졌다.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전북의 동물헬스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18 케어 산업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

> 전북도가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4단계 프로젝트의 비전과 계획이 소개되며 국내외 기업과 전 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프 로젝트는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 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성과를 바탕 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전북의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세계적 수준 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산학관이 함 을 공유하고, 신약 개발과 동물용 백 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신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활발한 논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새만금 중점' 물산업 육성전략 모색

#### 24일 전북포럼서 물산업 세미나 새만금권 거점 전북형 맞춤 전략 도내 물산업 발전 민·관·학논의

전북도는 오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 에서 열리는 제2회 전북포럼에서 생명 경제 실현을 위한 전북의 물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전북물포럼 세미나를 개 출, 일자리 창출 등 클러스터의 5년간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물포럼과 금강유 업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도의 생명 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제 비전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건하 금강유역물 관리위원장과 강동희 전북물포럼 공동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훈주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부장이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 및 계획'을 주제 로 발표에 나선다. 입주기업의 매출, 수 성, 창업·사업화 전방위 지원, 물산업 진 역물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물산 흥 거버넌스 강화 등 향후 2기 운영전략

이어 김보국 전북연구원 수석연구위 원은 '전북 물산업의 지역특화 전략' 발 표를 통해 도내 물산업 여건과 타 시도 와의 차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권을 거점으로 한 이차전지 세척수 회 수·재활용, 스마트팜 물순환 체계 구축 등 전북형 맞춤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전북은 물산업 유치 및 R&D 연계 부족,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등 한계도 안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유망 물기술 육 고 있어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 역 주도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 조될 전망이다.

발표에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창 해 나갈 방침이다.

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 등 물 분야 전 문가 7인이 참여해 전북 물산업의 경쟁 력 확보와 지역 특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곽동희·박영기 전북대학교 교수, 정용 원광대학교 교수, 이종권 K-water 부장,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박상우 제이씨엔(주) 부사장, 김도현 익산강살 리기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도정 정책과제로 연계해 구체화 /장정철 기자

## 윤준병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 대표 발의

#### '**주변지역' 기존 5km→10km 확대** 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의 밝혔다.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 공존 최소한의 장치"

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 수성을 반영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준위 방폐장 주변지 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 여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힐 필요가 있 성을 갖는다. 실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 령에 위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이 '주변지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 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정을 인용한 것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 변지역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



윤준병 의원

일반 발전소와 달 라 주변지역의 범 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

고 발생 범위, 주민

들의 사회적 수용

반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하다"고 지적했다.

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 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 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 설은 일반 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특수 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

관리시설은 고준 필요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 위 방사선물질의 다.

안전성과 이에 따 윤 의원은 "곧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 른 환경적 영향, 사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 은 시설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변 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발전소에 적용되 는 5km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 적 수용성이 약화돼 제도 개선이 시급

> 이어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 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 미래차산업 핵심…특장차 산업 박람회 '주목'

####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자율주행·첨단 모빌리티 등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0 일까지 김제시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를 개 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특장차 집 적화 단지를 기반으로 설계·제작·검 사·인증·연구개발·인력양성까지 아우 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널리 알리고, 미래 기술 방향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이후 ▲특장차 정책세미나 ▲ 수출상담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산업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져 기업 간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전시장에는 특장차, 자율주 행차, 특장 농기계, 첨단 모빌리티 기술 혁신 제품 등이 대거 출품돼 최신 기술 과 시장 동향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 시민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고 소작업차 탑승, 전기 굴착기 조종, 드론 제작·조종, 어린이 특수자동차 그림그

리기 대회, 자동차·특장차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됐다. 김제 청년축제와도 연 계해 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형 박람회로 치러지며, 푸드코트·기념품 증정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도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 제 1특장차단지(306억원, 327,903㎡)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 (687억원, 336,322㎡)를 추가 조성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대규모 산 업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 한 주거・생활 인프라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원) 및 검사지원센 터(72억원)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해 생산부터 인증·튜닝까지 원스 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은 특장차 산업을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북타임스

#### 전주권 광역교통사업계획(안) 국토부 광역교통위원회 제출

전주시가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일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국가계획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익산·군 산·김제 등 관계 시·군, 국토연구원, 전주 시정연구원과 협력해 마련한 전주권 광 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이 최근 국토교 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됐다고 19 일 밝혔다.

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자체 재원에만 의존해야 했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최대 70%의 국

비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전 주시는 대광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 지역 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 계획에는 △전주 중심 방사형 광역도로망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총연장 69km) △전주~새 만금을 잇는 광역철도(76km, 9개 정차역)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 터 2곳 조성 등 15개 핵심사업이 담겼다.

먼저 광역도로 사업 경우 약 1조8000 억원을 투입해 전주 도심과 외곽,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간선축 10개 노 선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 신 설 사업은 전주와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 이는 지난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결하는 것으로, 시는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 건의와 병행해 국비 확보를 다 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효자~이서 도로 확장 취 2단계로 새만금까지 연장 운행하는

(콩쥐팥쥐로)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 로 확장 사업 등이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에 담겼다.

시는 이러한 광역도로 확장·신설 사업 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경우 전주 주권 광역 생활권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광역철도의 경우 전주역에서 출발 해 완주 삼례~익산~군산~새만금 수변도 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동산·삼례· 동익산·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역 등 9 다"며 "아울러 지방비 확보에도 다각적 개 정차역(총 76km)을 운행하게 된다.

시는 철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을 고려해 기존 선로를 활용해 운행할 수 을 집중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있는 구간을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 새 수 있는 교통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 만금항 인입철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 다"고 말했다.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권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철도 인 프라가 부족한 전북권에서 전주, 익산, 군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새만금과 연계 와 인접 시·군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전 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권이 그간 국 가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되어 온 만 큼 중앙부처에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 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건의하겠 인 노력을 기울여 광역교통망 사업이 흔 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

> >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시간제속도제한시행

임실기림초속도50Km/h상향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 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 제한'을 22일 임실군 기림초등학 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행한다.

시간제속도제한 대상 구간은 임 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로 국도 17 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 한속도 30km/h로 운영하는 구간 으로, 교통 불편 민원이 높은 구간 이다.

이에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 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

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학로 횡 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에 무 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 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시간제속도제한 구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 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 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추석 연휴 기간 청소종합대책 가동

####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청소상황실·기동처리반 운영

전주시가 쾌적한 도심 환경 유지를 위 해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 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청소 공백 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 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 의 경우 10월 3~4일, 7~8일 등 4일간 생

지를 '추석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 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한다.

이어 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이어지 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생활 쓰레기 민원 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 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한

는 10월 3~4일, 7~9일 등 5일간 생활폐 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하고, 대행구역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영구역(6일)과 대행 구역(6일, 9일)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 소와 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쓰레기 수 거 휴무일을 알려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동시에 시는 직영구역에 대해서는 오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쓰레

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유동 인구 와 방문객이 많은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

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해 연휴 기간 로 정하고, 연휴 기간 및 쓰레기 수거 휴 무일에도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집 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추석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아울러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 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 전주, 2036 하계올림픽 2036 D JEONJU 국내 후보도시 선정 뜨라자

#### 전주시,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영 확대

상업용 광고까지 시범운영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LED 전자 게시대 시범운영을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완산구 통일광장 사거리에 LED 전자게시대 1기를 설 치해 공공광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해왔다

또 지난 6월 덕진구 화개네거리에 1

기의 게시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새롭게 설치된 LED 전자게시 대를 활용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 월까지 공공광고에 이어 상업용 광고 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광고뿐

만 아니라, 전주지역 자영업자와 소 상공인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합 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시범운영 확대와 발 맞춰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전용 누리 집을 구축해 광고 신청부터 추첨·배 정·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LED 전자게시대 시범운 영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줄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소상공 인에게 부담 없는 광고 수단을 제공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시조례입법

평가에관한조례안

은 조례의 입법 목

적과 목표 실현 여

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

과 안정성을 높이기

#### 김동헌·이성국 의원 조례안 각각 가결

전주시의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 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조 례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국 의 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여성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을 겼다. 각각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입법평가 대상 △계획 수립과 기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과 공표 및 활용 방안 등이 담

김동헌 의원은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고 있다.



이성국 의원

뢰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가 실

체계를 마련하게 됐

다"며 "자치입법 신

지원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기로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규정하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제 현장에서 제대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피해자 작동하는지 점검하 보호・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 고 개선할 수 있는 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지 원 △상담소의 업무 및 보호시설의 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성국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순한 개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 저출산 고령화 대비

####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전주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지속적 인 인구 유출 등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2025년 제2차 인구정책위원 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민간위원 10명을 재위촉하고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제3기 인구정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어진 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 청년·일자리  $\triangle$ 주거도시  $\triangle$ 인식개선  $\triangle$ 외국인 등 6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2025년 상반기 인구정책 시행 계획 추진상황'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 심사와 신규시책 제안・ 발굴을 위해 토론을 펼쳤다.



전주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제2차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현실 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매 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제안공모전에 접수된 102건의 제안 중 1차 부서 서류 검토를 통과한 10건의 최종제안서에 대 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는 창의성과 경 제성, 실용성, 계속성 등 종합적으로 고 려해 이뤄졌으며, 최종수상자는 오는 10 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동욱 부시장은 "제2차 인구정책위원 회 회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되어 반영되기를 바 란다"며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25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전북 공공보건의료 성과 공유 '전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025년 전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성과를 공 유했다.

심포지엄은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봄통합과 책임의료기관의 연결'주 제로 열렸다.

더불어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 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도내 협력모 델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 최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 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 원, 남원의료원이 공동 주관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

(목) 11:30 - 17:00

전주 더 메이 호텔 그랜드볼룸 (2층)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동향(유원섭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국립중앙의료원)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의 정책 대 응 방향(변재관 위원장) △전주시 돌 봄통합 추진 사례(권근상 교수, 전북 의대) △도내 권역별 퇴원환자 연계 사업 현황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 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의를 통해 퇴원환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의 구 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협력체 계 구축사업으로 △퇴원환자지역사 회 연계사업 △중증응급이송전원협 력사업 △감염및환자안전관리사업 △재활의료 지속관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이 루고 있다.

/정혜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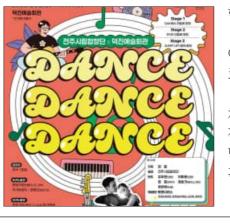
#### 전주시립합창단, 'Dance Dance' 공연

#### 오는 25일~26일 덕진예술회관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 자 김철)이 클래식을 넘어 대중적 리듬과 무대 퍼포먼스로 관객을 만나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관에서 특별공연인 'Dance Dance' 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김철과 부지휘자 이영수의 지휘 아래, 건반 강우현·이미 르, 타악기 정훈, 베이스기타 정송이, 드 럼 장찬양, 색소폰 김병열 등으로 구성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5일과 26일 된 밴드가 합류해 색다른 무대를 펼친다. 이틀간 매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 여기에 라틴 전문 댄스팀 '트렌디댄스'가



함께해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꾸민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합창과 밴드, 무용이 어우러져 팝, 재즈, 삼바 등 대중음악 장 르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 입장권은 전석 1만원으로, 나루컬

쳐 누리집(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첫 날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모든 관람객에게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정혜민 기자

# 전북조달청-여성경제인협회, 공공조달 방안 모색

#### 여성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 지원 조달청과 협력 강화

전북지방조달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은 여성기업 공공조달 방안 모 색을 위해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

이번 간담회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여성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 취 등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여성기업들에게는 보 다 효율적인 공공조달 시장 참여로 이 어져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이 공유됐다. 더불어 조달청과 여성기업 간 소통과

협력 강화의 장이 됐다.

책과 제도 변화 △나라장터 활용방안 △조달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방안 논의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입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제 도 개선 의견 수렴 등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여성기 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혁신 의 중요한 주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 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 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정미 회장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활용해 여성기업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변화된 제도 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는 여성기업 성장 지원 위한 지역 관계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정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



전북지방조달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공공조달 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여성기업과의 협력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찾아가는 청춘버스' 농촌 복지 앞장

#### 대학·기관 재능기부 농업인 복지증진 도모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부안 농협(조합장 김원철)은 2025년 제2호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를 운영 하며 농촌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농협만의 특색사업인 청춘버스 는 관내 대학교와 기관들의 재능기부 화체험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 를 통해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다. 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청춘버스에는 기전대와 비전대, 전 북대, 전주대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 해 인생사진 촬영 및 인화, 피부ㆍ네 일·헤어 미용서비스, 허브 화분만들 기, 간식나눔, 벽화 그리기 등 대학생들 의 밝은 에너지로 재능기부가 펼쳐졌

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원장 강경석), 부안농협(조합장 김원 철),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박영관), NH도농상생운동본부,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농협생 명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 농협손해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도 함께하며 방송촬영지원, 노후화된 차단기와 전 등 교체 및 의료키트 지원, 뇌파맥파 스트레스검사, 칼갈이, 찬찬찬 중식 지원, 사랑의 집고치기 등을 통해 청 춘버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아울러 백산초 학생들과 우리쌀 문

아침밥 먹기 일환으로 마련된 쌀 문 화 체험장에서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 회 회원들과 함께 농기구체험 및 쑥인 절미 만들기를 하며 우리쌀의 소중함 과 농업인의 땀방울의 의미를 되새기 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 운영 은 지난 19일 부안군 백산면 임방마을 과 백산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김원철 조합장은 "청춘버스를 통해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어르신들이 즐 거워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더 행복



전북농협과 부안농협은 2025년 제2호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항상 바쁜 학 사일정에도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준 대학교 및 기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발했다.

또 "전북농협은 지속적인 농심천심 운

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도 복지사 등을 전개해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 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활동을 펼쳐나가 겠다"고 밝혔다.

> 전북농협은 지난 3년간 청춘버스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 북관내 14개 시군에서 지역형 청춘버스 들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행복한하루 되세요 이심점심(以心點心) 중식지

####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전북쌀 소비촉진'

농심천심운동 전개 건강한 식문화 정착 행사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 경리)는 지난 19일 부안에서 전북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다.

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 험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이 주관했

행사 청춘버스 부스에서는 농협중 앙회후원을 받아 고향주부모임회원 들은 직접 만든 식혜, 인절미, 쌀가 루 구움과자 등을 백산면 주민들에 게 제공했다.

특히 백산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쑥인절미 만들기 체험과 농기구체 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경리 회장은 "희망농업·행복농 촌을 만들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함께 해준 회원 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올바 캠페인은 농심천심운동 전개와 건 른 식습관 형성과 전북쌀 소비를 위해 전북농협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육성 하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는 농협중앙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며,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을 위 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 /정소민 기자



#### '중장년 커리어 ON! 직무 콘서트' 성료

#### 경력전환·재취업 해법 제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 들을 응원했다. (소장 이명숙)은 지난 19일 전주상공회 의소 7층 대강당에서 '중장년을 신나 게! 중장년 커리어 ON! 적합 직무 콘서 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중장년고용강조 주간에 따른 것으로 전북지역 식품산업 현황 및 기업에 대한 이해·적합 직무 소 개와 함께 경력전환에 성공한 중장년 사 말했다. 례가 발표됐다.

더불어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제공되며 중장년

최지호 씨는 전직을 위해 중장년내일 센터 HACCP팀장 과정 교육 수료 후 코 아바이오에서 HACCP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례발표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명숙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소장은 "중장년내일센터서는 새로게 도전하는 중장년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9개 수출 멘토사·15개 멘티사 매칭

#### 선배기업 노하우 등 멘토링 후배기업들수출촉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 출 선배기업(이하 멘토사)과 후배기업 (이하 멘티사)간 상견례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멘토링 추진은 멘토사들의 수출 관련 적으로 멘토링을 추진했다. 많은 지원사업·정보 등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멘티사와 공유하 며, 수출에 대한 막막함 해결 및 네트워 킹 형성 등을 통해 멘티사들의 수출 촉 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북중기청은 중진공 전북본부, 전북 TP 및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글로벌강소기

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전북중기청은 발굴된 기업 들 중 업종 및 제품 등을 고려해 9개 멘 토사와 15개 멘티사를 매칭했다.

이번 상견례 설명회는 먼저 매칭된 멘 업청(청장 전세희)은 지역 중소기업 수 토·멘티사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 으로 진행됐다. 이날 멘토·멘티사는 주제 및 형식 등

> 에 관계없이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자율 아울러 멘토링 애로사항 해결 및 추가 적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들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말 멘토링에 대한 성과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수출 확대 를 위해 고군분투 중에도 멘티사를 위 해 멘토사로 참여해 준 기업 관계자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선배기업과 후배기업간 상견례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경험과 노하우 등이 멘티사들에게 수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 등 멘토링에 참여 멘토·멘티사 발굴 등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멘토사의 의 발판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계기가

/김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 농안법 개정 추진계획 공유·세부 운영 방향 논의

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이 지 난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

공급 위한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다양 공유했다. 한 의견 등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 통업체 직공급, 감자의 할당관세 적용 안 등이 모색됐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이와 함께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 류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며, 담당 부처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인 기상청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으로 력해 농산물 안정 공급을 위해 최선을

더불어 농산물 생산 안정 위한 민·관 회의를 통해 무 공급량 조절, 양파·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 방안 늘 추석 성수기 정부 비축물량 대형유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의 구체화 방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농산물 안정적인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신규 위촉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 을 넓히고,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전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주요 노지채소 국민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함께 협 /김영태 기자



#### 전주상진신협, 취약계층 위한 생필품 전달

김현정 전주상진신협 이사장은 지난 19일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스를 기탁했다.

전주상진신협 어부바박스 전달은 지 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추석'을 다짐하며, 중앙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어부바박스'를 기탁했다

어부바박스에는 밀가루, 세제, 키친타 되겠다"고 밝혔다. 올 등 생필품이 포함됐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전주상진신협은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중앙동 일대 장 박미숙)에 200만원 상당의 어부바박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생활고를 완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이사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역 가정들의 생활비 부담에서 오는 경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 행사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상진신협은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며, 앞으 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김영태 기자

# 전북 학폭 피해율, 전국 평균 웃돌아…대책 필요

#### 초등 저연령화 심화 학교장 종결제 비율 급감 교육사법화가속화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 학교폭력 피해율이 3.1%로, 전국 평균 웃돌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종 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 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10만 177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3183 명(3.1%)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는 전국 평균 2.5%를 0.6%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전북 지역 학교폭력 상황이 전국보다 심각한 상 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평균을 초과했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전북 6.3%로 전국 5.0%보다 1.3%포인트나 높아 학 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3%)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17.2%), 신 체폭행(14.1%), 사이버폭력(8.2%) 순 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29%), 점심시간(21.4%), 하교이

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간대에 집중

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히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점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전북의 피해 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특히 초등학교 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 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라고 말했다. 향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 위 기이자, 전북교육이 직면한 중대한 도 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 사회

후 시간(11.2%) 등 교사의 지도·감독 정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관 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 전북교총은 또한 "최근 학교장 종결 히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본연의 교 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전북 학생들 이 어디서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습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 "학교폭력 없는 전북교육을 위해 현장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최성민 기자

# ■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 해결을 요구하 며 지난 19일 전북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전교조 위원장 "악성 민원 해결하라"

전북교육청서 농성 돌입 대응전담기구구성등주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 조) 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전 다. 북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농성에 앞서 이날 전 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북의 한 초등학교가 악성 민원 때문 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 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당국 의 역할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인 앞에서 교육청 과 학교의 대응 시스템은 무용지물 이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 아가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라"고 요구했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이 당장 현장으로 달려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학교 악성 민원 을 방지할 종합대책 마련과 이에 대 한 대응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주문 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상시 기동감찰' 공직기강 확실히 잡는다

#### 연중 상시 운영 내달 17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 립과 부패 예방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 을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상시 기동감찰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현장 밀착형 감찰체계로, 도교육청 누리 집,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직비리 익명 제보시스템, 언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찰반을 현장에 수시 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감찰 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교육지원 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교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보안관리 미흡△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위 반 등 교육 현장 전반을 포괄하며, 야 간·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까지 포 함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우월적 지 위 남용·성비위·금전 비위 등 중대 사 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요 적발 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 중점 감찰사항은 △복무 위반 △금 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까지는 '추석 대 비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병행, 명절을 틈탄 금품 수수·부정청탁 등 비위 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는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를 대 상으로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도 실 시한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문화는 교육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강도 높은 상시 기동감찰과 취약시기 공직기 강 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 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어학당 설립 '첫발'

#### 14개 시·군 가족센터협회 협약 지역외국인교육등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 당을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전북대 국제처(처장 조화림)는 지난 18일 고창군가족센터에서 전북가족센 터협회와 한국어 교육 및 외국인 유학 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협약식에는 소화림 국제처상을 비 롯해 김태연 언어교육부처장, 장덕상 전 북가족센터협회장, 14개 시·군 가족센 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가족센터를 대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역정 주 외국인 지원과 기족 복지 향상을 위한 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글로컬대학으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을 지탱하는 글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성 장, 다양성의 힘'이라는 기조 아래, 한국 어 교육을 매개로 지역 소멸을 막고 외 국인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한국어학당 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 온 한국어 교 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나아가 남원 글로컬캠퍼스 내 한국어 학당 설립 및 운영에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조화림 전북대 국제처장은 "글로컬캠 퍼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4개 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는 이제 단순한 교육기관



협약 기관인 전북가족센터협회는 전 시·군 가족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북대학교가 내년 개교 예정인 남원 글로컬캠퍼스에 한국어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최성민 기자

####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 워크숍

'더 널리 문화누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사 이경윤)은 익산 왕궁포레스트에서 도 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 카드) 사업 담당자 워크숍 '더 널리 문화 다. 누리'를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더 널리 문화누리'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14개 시·군 지자체 △243개 읍·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기 획됐다.

익산 왕궁 포레스트에서 열렸다.

지역 사업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현황 공유, 민원응대 등 역량 강화 교육,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체험 도, 도내 14개 시·군, 재단이 공동 주관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 우수기관 시상 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년도 발급·이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문화예술, 용실적과 신규수혜자 발굴, 전액사용자 체육활동, 국내여행 참여를 적극 유도할 비율 등을 기반으로 평가해 전북자치 계획이다. 도 지역의 우수 지자체 2곳과 주민센터

3곳을 선정하고 시상과 함께 담당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수 지자체는 △무주 △완주가, 우 수 주민센터는 △부량면(김제시) △순 창읍(순창군), 상전면(진안군)이 선정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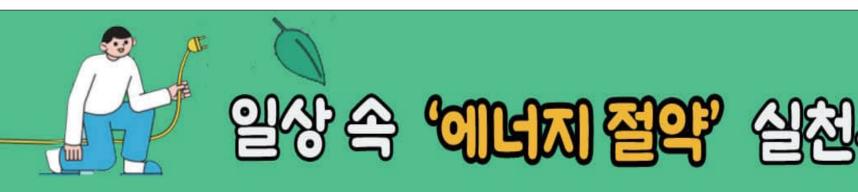
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도내 문화 누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담당자 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문 화누리카드)은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 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 이번 행사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인 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 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묵특별자치

재단은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이용 사업은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높 촉진 기획 프로그램과 실무자 역량강화

/장정철 기자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세탁기 사용 회수

줄이기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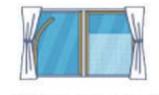


줄이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석치하기

사용하기

#### 군산시, 24일~10월 1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합 작품전시회

군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 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에서 '2025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합 작품전 시회'를 개최한다.

'손끝으로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군산시와 군산장애인종합복 지관, 나포길벗공동체, 구세군군산목양원 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기관 학습자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예술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 아트플랫폼 '달팽이 공 방'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 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된다. 30일에는 2025 군산시 발달장애인 그림그리기 대회가 군산예술의전당 2·3전 시실 로비에서 열리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예술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성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뜻깊 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 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 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샘고을정다운 상권 활성화협의회 사업 추진 논의

정읍시가 지난 18일 정읍시상권활성화협 의회를 열고 샘고을정다운 상권활성화사 업(추진단장 이한익) 3차년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샘고을정다운 상권활성화사업은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해 추진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침체 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자생적 경영 관 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즐길거 리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을 매력적인 방문 지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년도 시행계획의 진 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권 이용 환경 개선, 각종 행사 개최, 상권과 유적지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 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다 시 확인하며 향후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을 드러냈다.

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원도심 상권 을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회복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출신 송안훈·문정현 정기연주회 무대 올라 '호응'

군산예술의전당은 지난 18일 저녁,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군산시립 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가 여느 때보 다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공연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서곡 으로 시작해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어진 비제의 '카르멘' 서곡은 강렬한 리듬 과 생동감 넘치는 전개로 객석을 압도하며 공연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그는 스페인의 정취와 낭만을 담은 '그라 나다'를 부르며 고향 무대에서의 특별한 감 회를 전했고, 이어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 사의 노래'를 열창해 관객의 큰 환호를 받 았다. 문정현의 무대는 단순한 성악 독창을 넘어,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한 예술인이 고향에 바치는 감사와 헌신의 메시지로 다 가왔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던 차이코프스키 교 향곡 제5번 '운명'은 절망과 고뇌, 환희와 승리를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을 그려냈다.

송안훈 지휘자의 섬세하면서도 깊이있는 해석과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탄탄한 앙상 블이 어우러져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선사 했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과장은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과 군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 기·기획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790억 규모 재정 추석 전 집행

#### 농민수당 84억원 포함 서민 생활 안정 경기 회복 마중물 기대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790억 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신속 집행한다.

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시설비 164 억 원, 사회복지 분야 370억 원, 기타 경 상적 경비 172억 원, 농민 공익수당 84 억 원을 포함한 각종 대금을 10월 초 추석 전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을 미리 확보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 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시는 '농민 공익수당' 약 84억 원도 추 석 전인 오늘부터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급은 2차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추 진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지급 대상은 3월부터 6월까지 신청한 농업인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 된 1만 7,000여 명이다.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 체는 농업인당 30만 원이 각각 지급되

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대기 자금 며, 다이로움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 능하다.

> 농민 공익수당은 병원이나 하나로마 트, 주유소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 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 어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정헌율 익산시장은 "재정의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민생 예산 집행이 서민 생활 안정 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장,시민과마주 앉아'타운홀미팅' 개최

25일 시청서 열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는 '진짜 소통의 장'을 마련한

익산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시 청 1층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19일 밝

이번 타운홀미팅은 익산시가 추 진 중인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 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 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부에서는 사전 시민 의견 조사 다. 를 통해 최근 관심이 높은 주요 정

책들을 선정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정책 토크'가 열린 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배 경과 추진 과정 등을 시장이 진솔 하게 풀어내는 시간이다.

2부는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열린 분 위기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갈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타운홀미팅 을 통해 시민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더 나아 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 행정혁신 인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지역주치의제' 가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 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품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낸 기초지자체를 엄격한 심사로 선정 해 우수 행정사례를 널리 확산하자는 한점이 혁신성, 공공성, 확산 가능성에

취지로 제정됐다.

시상식은 이데일리가 주최했고 행정 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 전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 의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후원했 다. 시는 초고령사회라는 지역 현실과 의료 공백 심화를 직시하고, 전국 최초 로 '시니어 의사 지역주치의제'를 도입 했다.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고 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읍시는 명 시민을 관리하는 구조를 세워 접근 성을 높였고, 맞춤형 건강 상담과 연계 지원으로 시민 건강권을 지켰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체계를 설계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 사업의 성과를 넘어 민선8기 정읍시정이 추진한 적극행정 과 혁신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읍형 모델은 의료취약지 해소와 초 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대안으로 전국 확산이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묵묵한 헌신이 함 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으로 '100년 정읍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발굴 성과 공유 신구류와 철도자·관정 등 철기류, 광구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

조사에서 금제 장신구와 철기,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며 백제사의 중 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됐다.

정읍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에 분포한 270여 기의 고분 중 대 표적인 횡혈식 석실분 56기를 포함해 2018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 청의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2022년부 터 연차적 발굴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9기의 백제 고분이 확인 됐다.

고분 내부에서는 금제 장신구와 금동 이식, 정농팔찌, 정농뉘쏮이, 구슬 능 상

장경호·병형토기·삼족토기·대부완·개 배 등 토기류가 다수 출토됐다.

특히 금제 장신구는 백제 지방 지배 세력의 성격과 교류 양상을 규명할 수 지난 18~19일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백제 중앙세력이 웅진기 초기에 중방 고사부리성 일대 까지 지배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이학수 시장은 "은선리와 도계리 고 분군은 백제 중방문화권의 성격을 밝 히는 핵심 유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이어가 정읍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높 이고,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 화지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본격화

#### 만경강 수변도시 발판 새만금 배후도시로 조성

익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만 경강 수변도시'라는 공간을 내세워 유 치활동에 적극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 차 이전이 재반영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혁신도시 확장을 위한 유 치전략을 전면 가동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변도시는 2030년 이후를 목표로 새 만금과 연계되는 배후도시이자, 공공기 관·연구시설·의료기관 등을 수용할 수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공약사 있는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된다.

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장기 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기관 유치 에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실제 수변도시 예정지 내에는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건립과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공공성이 높은 기관 유치가 추 과도 궤를 같이한다. 진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산업기능을 포함한 복합도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원의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업으로 '제2 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확 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정 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분야의 55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 상으로 검토했으며, 이는 익산시가 중 점 유치 대상 20개 기관을 선정한 전략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만경강 수

면서도 실현 가능한 기반과 여건을 갖 고 말했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전북도 전체 차 춘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 기반을 구체화하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 별자치도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 상기관과의 유기적 소통 및 지역 정치 권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 전은 익산시가 호남권 핵심 도시로 도약 변도시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국가균형 이처럼 익산시는 도정 기조에 부합하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전국 모범 사례로

성과대회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익산시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공 공보건 사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장려상)을 받았다.

업 성과대회 '대상'에 이은 수상으로, 익산시가 한의 난임부부 지원과 건강 했다.

증진 사업 모두 전국 모범 사례로 자 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속 수상으로 익산시 보건소 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과 성과 익산시 보건소는 지난 19일 보건복 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진윤 보 건소장은 "한의약 기반 사업들이 주민 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전국적 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 특히 지난 12일에 열린 한의난임사 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서 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자매도시 김천서 우수 농특산물 판매

#### 올해 사전주문 작년보다 30% ↑ 6천여만 원 달성

군산시가 23일 자매도시 김천시를 방 문, 군산시의 우수 농특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군산시는 김천시와 1998년에 자매결 연을 체결했으며, 2009년부터는 양 도 시의 우호 증진과 함께 지역의 우수농 산물 교류 판매행사를 17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장에서 포도·자두·복숭아 등 맛과 품 질이 우수한 과일 판매행사를 진행해 약 6,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어 군산시가 오는 23일 김천시를



먼저 김천시는 지난 7월 군산시청 광 산물을 김천시민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호우 등 재해로 진행하지 못했던 현장 예정이다.

이번 김천시 방문 농산물 교류 판매 방문해 군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 명이 김천시를 방문해 지난 2년 동안 고말했다.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생의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며 시의회·농협·수협·농업인단체 등 60여 양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 /군산=지송길 기자

#### 'GO! 군산 섬해진미'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군산시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 았던 'GO! 군산 섬해진미' 2회차 프로 장 깊어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좋다. 그램을 개최한다.

도가 주관한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 7월 1회 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식관광이라는 점이 부각된 'GO! 군산 섬해진미'는 모집 개시 이틀 만에 정원 의 5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됐고,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2차 여행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관리도는 폭포바위, 삼선바위, 쇠코바 위 등 독특한 자연경관들로 유명하며,

고군산군도의 섬들 중에서 수심이 가

특히 배낭여행 성지로 유명세를 얻고 'GO! 군산 섬해진미'는 올해 초 전북 있는 관리도 캠핑장을 주무대로 삼아 백패킹과 미식을 결합한 특별한 체험 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여행자들을 위해 △섬 주민과 섬과 미식을 함께 즐기는 체험형 미 함께하는 고동잡기·통발 설치 어촌체 험 △제철 해산물과 관리도 식재료를 활용한 셰프 챌린지 등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

이번 투어에는 총 30명을 사전 모집 이번 2회차는 그 성과를 이어받아 더 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군산 시 공식 사회관계망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있는 'GO! 군산 섬해진 고군산군도 관리도 일원에서 열린다. 미' 안내 게시글 QR 부호(코드)를 통 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김제시, '재해예방사업' 485억원 확보

#### 의곡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침수취약지 개선 등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6년 재해 예방 신규사업으로 황산면 의곡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485억 원 규 곡지구 선정은 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재해예방사업의 성과로, 대규모 국비 를 확보해 지역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 는 계기가 됐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제방 유실 등 풍수해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 해 생활권 단위로 하천·배수·도로·주 택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규 모 재해예방사업이다.

의곡지구는 그간 집중호우 시 침수 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특히, 이번 의 위험과 재산 피해 우려가 컸던 지역으 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 △배

수로 및 저류지 정비 △침수 취약지 개 선 등 종합적인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 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 을 통해 김제시가 485억 원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이며, 상습침수로 인해 주 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곡지구 재 해예방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 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삼아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민주당 지역위 정책協, 국비확보 힘모아

####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더불어민 주당 지역위원회가 2025년 두번째 정 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 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고창군청 2층 회 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조민규 고 창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김만기·김성수 의원과 군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고창군이 이뤄낸 주요 성 과들을 함께 돌아보며 축하와 격려의 시 간을 가졌다. 주요성과로는 삼성전자 고 창물류센터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비롯해 14개 기업에서 총 1조 56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제22 회 청보리밭축제와 제62회 전북특별자 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고창 명품수박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으로 돈버는 농업농촌 실현, 민원서비스 종 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청년특



화주택 건립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등이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41 건(현안 18, 국가예산 23)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창군 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 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 안철도 건설사업 △노을대교 조속착공 △전북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확대조 성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 업 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군이 제시 한 사업은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 심 과제"라며 "고창군의 주요 현안이 조 속히 해결되고,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확 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이뤄낸 눈부 신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창 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현안사업 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동촌풍력발전㈜, 해상풍력 발전사업 협약

#### 주민참여형 사업추진 등 지역상생발전상호협력

종)이 지난 19일 오후 신재효 판소리공 원 체험관에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 업 지역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오희종 동촌풍력발 전대표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참석 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

지역 인력 및 장비·자재 우선 활용 △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고창군과 동촌풍력발전㈜(대표 오희 참여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으 겠다"고 말했다. 로 구성됐다.

고창군은 행정적 지원을, 동촌풍력발 전㈜은 사업 총괄과 지역 기여를 책임 지며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은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 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판 밝혔다. 을 마련하게 됐다.

오희송 농존풍력발전㈜ 대표도 "고 협약은  $\triangle$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triangle$  창군과 함께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 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며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적극 실천하

>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 순한 에너지 개발을 넘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지평선축제' 성공적 개최 위한 사전교육 진행

#### 화재예방·가스안전 교육 '만이웃지' 캠페인 전개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9일 제 27회 김제지평선축제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

시는 오전 10시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화재예방·보건위생 사전교육과 함께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 한 '만이웃지'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평선 맛집장터,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농특산품 장터, 마 중거리, 푸드트럭 등 축제 운영에 참여 하는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재예방 △가스안전 등으로 진행됐으며, 운영자들이 축제장 내에서 즉시 반영해 안전사고를 실직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는 '약속3 함께 웃어요', 쓰레기 불법 내용들을 담았다.

아울러, '함께해요 4가지 약속'캠페인 하자는'약속4 함께 지켜요'등이다.



도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의 핵심 내용 인 4가지 약속은 추석 모임을 지평선축 제장에서 즐기자는'약속1 함께 만나요', 셔틀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 는'약속2 함께 이용해요', 축제 방문객 들에게 친절한 인사와 미소로 응대하 투기 금지 등 거리도 마음도 깨끗하게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매 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농 경문화축제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축 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사전 교육 을 준비했다"며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출향인 초청 팸투어 참가자 모집

총 30명 초대 30일까지 접수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0월 25~26일(1박2일) 출향인 초청 팸투 어 '고창 리턴즈 투어 리멤버 고창 한밤'을 운영한다.

이번 팸투어는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다시 느끼고 싶은 출 향인을 초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 하며, 고창에서 태어나 5년 이상 거 주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타 지역 에 거주하는 출향인을 대표자로 해, 2~4인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30명이며, 참가비 는 1인당 5000원으로 전액 고창사 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프로그램은 고창군 생물권스토 리텔러와 함께하는 고창 투어, 상하 농원과 구시포해변 관람, 운곡람사 르습지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자 중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 을 충족한 팀을 선발하며, 최종 선 정 결과는 10월 2일 고창문화관광



재단 누리집에 공지되고, 개별 문자 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 이사는 "이번 '고창 리턴즈 투어: 리멤버 고창한밤'은 출향인과 가족 이 함께 고향의 매력을 다시 체험 하며 정서적 유대를 이어가는 소중 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출 향인 분들이 함께해 고창의 가을을 즐기고 따뜻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 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내달 14일까지 '환경오염 감시기간' 운영

명절 연휴 관리 감독취약 대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대비해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사 업장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23일 간을 '추석 연휴 환경오염 감시기간' 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 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 다. 이번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 부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점 감시 대상지역 시설에 대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 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지역을 중 심으로 한 감시·순찰 활동과 특별단 속도 병행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추 석 연휴를 앞두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세정과, 재정분석 평가지표관리 역량 강화 연찬

"신뢰받는 재정 운영 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세정과가 지 난 17일 '지방교부세 세입 확충 자체노 력도 반영 항목 분석 및 세입분야 지방 재정분석 평가지표 관리'를 주제로 전 운영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에서는 지방교부세 세입분 야 자체노력도 항목이 시 교부세 산정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더불어, 자치 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

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세정과 직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올 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통교부세 관련 업무연찬을 실시하며 건전재정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을 계 기로 직원들이 한 단계 더 전문성을 높 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재 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해양수산과, 장학기금 후원 캠페인 동참

부안군청 해양수산과(과장 김성열) 장학기금 후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부안군근농인재육성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운동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후원을 통한 장학 기금 마 련과 나눔 문화의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등 부안군의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 며, 다양한 현장에서 군민들과 소통 혔다. 하고 있다.

특히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 는 지난 18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 낚시어선 운항자 복수 지정 제도 신설 등 규제개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 써 군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치 고 있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청년들을 해양수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응 캠페인에 참여한 해양수산과는 수 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 로도 해양수산과는 부안의 미래인재 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튼실한 해양산 업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포부를 밝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70억원 규모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358명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 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 고 지급하는 수당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 급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돼 정책대상에서 소외됐던 여성농업인, 지급 제외됐던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 년농업인 등도 지급 대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 19일 부터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김제사랑카 드에 순차적으로 충전될 예정이며 지원 단 가는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이상 경영 체부터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다. 다 만,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 되고 신규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부터 지급대상 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 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 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총70억원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9일 시청사 에서 추석맞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현장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가 주관하고 전북특별 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최했 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직업재활시 설에서 생산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됐으 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한 선물 세트와 함께 물티슈, 김, 견과류 등 약 40여 종의 우수 생산품이 전시·홍보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이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이 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 품의 중요성과 사회적의미를 알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응원 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썼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 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사 회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 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따 뜻한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세대공감예술인전' 고창문화의 전당 전시실서 25일까지 열려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19~25일 '제 4회 고창세대공감예술인전'전시회가 열린 다.

이번 전시회는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 부(지부장 권애란)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 원하며, 김정란 작가와 김영대 작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선보인다.

원로작가와 청년작가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고창 세대공감예술인전은 올해로 4회 째를 맞고 있다.

세대가 다르더라도 예술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시각을 공유하며 향상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과 연계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 미술인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정란·김영대 작가, 권애란 한국 미술협회 고창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품격있는 작품들로 지역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군민 모두 에게 예술을 통한 즐거움과 감동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화산면 가축분뇨 친환경 연료로

#### 군·주민·축협 상생 협력 본격화 318억 투입 연료화시설 설치 협약 마을도로 등 지원 병행하기로

완주군이 화산면 가축분뇨 해결과 지 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걸음 치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을 내디뎠다.

화산면 운곡리 수실·돈의·부현마을 주 민,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친환 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지속발전협의 회와 함께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 로 하고 있다. 업 주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규성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 원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마을 이장과 주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 하게 논의해왔다. 석해 상생과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화산면 일대는 그동안 축산농가의 가 담겼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다목적 체육관·당구장 등 갖춰

산내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가 첫 문을

남원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

을 기념하여 지난 19일 오전 11시 산내

커팅으로 공식적인 산내면 국민체육센

터의 개관을 알렸으며, 2부 행사로 산

산내면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1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 46억원(국비 10억원, 특별

내면 경로잔치를 같이 진행했다.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가 투입됐다.

연다.

축분뇨 처리 지연으로 악취 문제가 꾸 준히 제기돼 왔다.

위해 2024년 3월 전북특자도 컨소시엄 규제특례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김제완 주축협 주관의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

군은 지난 19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화산 면 운곡리 42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 으로,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해 내 년 하반기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설 준공

> 군은 지난 1년간 10여 차례의 지속발 전협의회를 열고 수차례 주민 설명회 를 개최하며, 사업 부지 선정에서부터 기로 합의했다. 악취 저감 대책과 지원 방안까지 꼼꼼

이번 협약에는 그동안의 협의 결과가 하고 마을 간 갈등을 완화하게 됐다.

남원 산내면 '지리산권 생활체육 구심점' 첫 문

군은 수실·돈의·부현마을을 위한 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포장 등 마을 군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모로 개선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를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 발전을 돕겠다는 방 침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대기방지시설 이 사업은 하루 120톤의 우분을 처리 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이 직 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퇴비 무료 지원 과 마을 발전기금 조성 등 주민 지원에 이후에도 지속발전협의회를 연 2회 이 상 운영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

> 군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

> >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본격화

#### 주민이 생활 법규 직접 제정 온라인·리플릿 등 다각 홍보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군 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 동에 나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상의 군민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완주군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

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 청구권자 총수는 8만6,223명이며, 50분의 1 이상인 1,725명의 서명 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 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 록 의회 홈페이지와 전광판 송출, 카드뉴스 제작, 홍보 리플릿 배포,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읍·면별로 현수막을 게시 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 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의식 의장은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완주군을 더 청구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되 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귀농·귀촌 실용교육 4개 과정 운영

#### 바리스타-목공-용접 등 생활기술 농기계 기초·AI마케팅 실습 위주

순창군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 비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2025 년 순창군 귀농귀촌 실용교육' 4개 프 전기용접 기초 등 농촌 정착에 필요 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자격 증(9월 11일~10월 13일) △농촌 생활 기술 실습(9월 15일~17일)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9월 18일~19일) △ 등이다.

첫 문을 연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4주 동안 커피조리학 이론, 커피머신 관리, 다양한 음료 실습을 통해 카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바리스 타 2급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농촌 생활기술 실 습은 목공·전기·용접을 아우르며, 목 공 이론과 실습, 전기 안전 현장 견학, 한 생활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농기계 안전 및 기초 실습에서는 예 초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굴착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이론과 실습으로 다 루며, 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 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AI 농촌 마케팅 교육은 AI 농촌 마케팅(9월 30일~10월 1일) AI를 활용한 콘텐츠 작성, 이미지 제 작, SNS 홍보 전략, 농산물 브랜드 스 토리텔링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 케팅 노하우를 실습한다.

/순창=박지헌 기자

# 별티 개관 면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 300여명과 이번 개관식은 터울림 행사와 테이프

남원시는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해 지난 19일 산내면 주민을 포함한 관계 자들 300여명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위치는 산내면 장항리 209번지 일원 이며, 지상 1층, 연면적 990㎡ 규모로 조성된 국민체육센터는 배구와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이 가능한 150평 규 교부세 8억원, 시비 28억원)의 사업비 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당구장, 샤워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됨에 따 라 지리산권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즐 거운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도약할 수 있는 산내면 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유치 염원 '범군민 포럼'성황

#### 군민·전문가 1500명 의지 다져 시범선정시전국농촌모델기대

순창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 정을 위해 군민·지역대표·행정 모두 한뜻을 모아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순창미래발전협의회(회장 서한복)는 지난 19일 일품공원 야외광장에서 농 촌기본소득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 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해 농촌기본소득 추 진에 군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포럼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 연천군 사례발표, 종합토론, 농촌기본 진행되었다.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방향, 그리고 순창군이 준비 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해 온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순창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유치를 염원하는 '범 군민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농촌 한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전환 점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순창군 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 소득 유치 촉구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전국 농 촌의 모델이자 국가적 정책 실험의 거 득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특히,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순 선정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환경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실현을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불 위해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군민이 참여 하는 실행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공감

>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농촌기본소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 공모

> >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골든벨' 울려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

2025년 도전! 종립골드벨

#### 지난 18일 전 직원 대상 개최 핵심 법령 중심 퀴즈 풀이 진행

남원시는 지난 18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도전 청 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 청탁금지법 제19조,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공직사회 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 럽게 실천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렴 골든벨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

령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 되었으며, 객관식·주관식·OX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자들이 쉽게 다 가갈 수 있도록 퀴즈 풀이가 진행됐

이번 대회에서는 1등 최우수상(50 만원), 2등 우수상(30만원), 3등 장려 상(20만원)이 수여됐다. 직원들은 퀴 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청렴 제도를 학습할 수 있었고, 서로 소통하며 즐 겁게 배우는 분위기 속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보건소 "코로나19 유행 이달까지 지속될 듯"

#### 10주 연속 입원환자 지속세 예방접종 오는 10월 15일부터

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10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9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군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수 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9.6.)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33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했으며, 연령별 입원 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의 60.6%로 가장 많았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관내 코로나 19 치료제 조제약국의 팍스로비드 재 남원시보건소는 국내 병원급 의료 고 확보 실태 및 공급 체계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 환자에 게 신속한 처방·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15일부터 실시 예정 인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질병관리청 운영 '코로나19 입원환 65세 이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자 표본감시 결과' 25년 36주 차(8.31.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인플루엔 자 백신과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추석 앞두고 예취기 무상 수리 지원

순창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민 과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취기 무 상 수리 서비스를 오늘부터 오는 10월 2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를 비롯해 복흥과 쌍치 권역 임대사업소 2 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상 수리는 추석을 앞두고 예취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 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 대상은 지역민과 성묘객이 사용하 는 예취기이며, 소모성 부품 교체 비용이 6 만 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한 다.

군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예취기 사용 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서"이번 무상 수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26일 사랑의 광장서 개최

남원시는 오는 26일 사랑의 광장에서 '오 늘의 평생학습,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 21회 남원시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를 개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갈고닦은 학습 성 과를 시민들과 생생히 공유하고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남원시의 대표적 인 평생교육 축제다. 민·관·학이 협력해 이 룬 성과를 자랑하고 나누는 뜻깊은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당일에는 성인문해 우수작 시낭송 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14개 평생학습 공연팀의 다채로 운 무대가 펼쳐진다. 또, 30여 개 체험부스 와 50여 점의 작품 전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채 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체험부스에서는 △프랑스자수 △캘리그 라피 △세라믹아트 △사진인화 △키링만들 기 △먹거리 체험 △인생네컷 △재봉틀 체 험 △포크아트 등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사전 홍보 퀴즈 △스탬프 투어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이 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참여자에 한해 추첨 을 통해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한편, 특별 강연 프로그램으로 '제169회 Play남원 아카데미'가 오전 10시 사랑의 광 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는 웃 음치료사 이임선 교수를 초청해 '웃음, 뇌에 불을 켠다'라는 주제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강연 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소방서, 대아저수지서 수난구조훈련 진행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최근 집중호 우로 인한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아저 수지에서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

이날 훈련은 마침 많은 비가 내려 실제 상 황과 같은 긴박한 환경 속에서 진행돼 대원 들에게 한층 실전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마스크 물빼기, 호흡기 교환 등 기본스킬과 중성부력 유지 훈련을 통한 수중 적응 △수난용 마네킹을 활용한 원형 탐색 및 흐린 물 환경을 고려 한 저시정 수중 탐색훈련 △보트 트레일러 를 이용한 현장 접근 절차, 고무보트 및 선 외기 운용, 저수지 주요지점 수심 확인 등 고무보트 운용훈련이 실시됐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 황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체계적인 대 응능력을 배양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대응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수난사고는 갑작 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능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구조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휴일 어린이집 1호점' 이서면서 운영 개시

#### 일요일·공휴일 보육 공백 최소화 군 "지정 확대해 나갈 것"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휴일 보육어린 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 이집 1호점'을 이서면 사랑뜰어린이집 웠기 때문이다. 으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맡길 수 있도록 휴일 보육어린이 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주말근무자, 조 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 지정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육아 태가 늘어나면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 완주군이 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고 있으나, 기존 어린이집 운영체계만

이용 시간은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서 휴일보육 서비스는 지역사회 보육 군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교사 1명당 평균 5명의 아동을 돌보며 집을 운영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장애이 및 0세 포함 시 보육 인원 조정 이 가능하다.

군은 지속적으로 휴일 보육어린이집 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맞벌이 부부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상황에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 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진안군의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15일 제 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어 지난 18일 위원장에 손동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명갑 의원을 각각 선임 했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의 각 종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 등을 부서에 집중적으로 질의·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을 통해 행정의 책 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손동규 위원장은 "군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 하게 살펴보겠다"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인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발의.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 원이 발의한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을 통과시 켰다. 이번 조례안 통

과로 장수군 한우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장수군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 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생산 기반 조성, 농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장수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 이다.

'축산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는, 값싼 수입 소 고기와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군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종섭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 등 문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농가 경영 안정 과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중 장기 정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2차 지급

장수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을 대상 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선정 기준표의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 인 군민에게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 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 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장수사랑상 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 또는 은행 영 업점, 장수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지역상 품권 cha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 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 능하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장수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이번에 추가로 가맹점으로 지정된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 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폐수처리시설 국비 예산 반영

#### 연장·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3억반영

진안군이 추진 중인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1단계)'이 2026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반영됐 다. 총사업비 140억 원이 확보된 가운 데 첫해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며, 지역 산업 기반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발 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사업은 연장 및 제2농공단지 운영 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장폐 수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다. 아울러 섬진강 유 역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2023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 로, 2025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

획 승인 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 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국가예산 반영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 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 고, 친환경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 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본격 준비

#### 대응전담TF팀구성 18일 공모 대응 설명회 개최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 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 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정부 시 범 정책이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 촌발전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공 모 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사업계획 서 작성,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주민 의 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8일 군청 농민교 육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 모 대응 설명회'를 열어 추진계획을 공 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실군은 지난 1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설명 회'를 열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심 민 군수와 실·과 장, 읍·면장 등 임실군 관계자를 비롯해 임실군의회, 도의원, 농·축협장 및 지점 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단체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실군의 공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군 특성을 반영 한 사업 추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

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지역 내 소비 침체 문 제해결에 기여하고 순환 경제 체계 구 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군은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베트남 다낭시 껌레동과 교류 확대

#### 대표단, 현지 공식 방문 국제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무주군이 국제 우호협력도시 다낭시 껌레동(군)의 초청을 받아 황인홍 무 주군수 등 대표단 일행 1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현지를 찾았다.

18일 공식 환담 자리에서 응우엔 호 아이 껌레동 당 위원회 서기, 응우엔 하 이 즈엉 인민위원장과 만난 황인홍 무 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대표단은 지 난 6월 24일 체결했던 국제 우호협력 협약의 실질적 이행과 향후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과의 면담을 통 해 경제·농업, 문화·관광, 교육·청소년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낭시는 베트남 중부의 교통·경제·관광 중심지로서 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 와 교통의 요지로 성장 중인 곳"이라며, 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과 관광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력이 큰 도시이며 껌레동 또한 주거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의회, 제348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등36건심의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22일 본 회의장에서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하 에 들어간다.

임실군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3 등 13건이 접수됐다. 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 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왕중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폐회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양주영 의원' 질의할 예정이다. 임실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종규 의원 '임실군 기후변 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김정흠 의원 '임실군 주민자치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오수면)을 방

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김왕중 의 모색할 예정이다. 고, 오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 일정 원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외 2건, △정일윤 의원 '임실군 찾아가는 염등 여름철 재해 대응에 애써준 집행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군정 질문은 김정흠 의원이 △관광분 소득 시범사업 유치 준비에 관하여, 김

주요 사업장은 △임실 기능성 식품 지원센터(운암면) △ 성수산 자연휴양 림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성수면) △

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문할 예정이며 의회는 사업 추진, 운영 안' 외 2건, △이성재 의원 '임실군 국가 상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 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개선 방안을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우·폭 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을철 태풍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 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임실N치즈축 하고 24일에는 조례안, 동의안 등 36건 야 투자 대비 성과 점검△농어촌 기본 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 다"고 말했다. 또한 "9월부터 할인율이 촉구 △장미축제 재고 요청에 관하여 15%로 상향된 임실사랑상품권과 22일 부터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에게 지역 소 비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권성훈문학평론가 보여줬다고 전했다.

제36회눌인김환태평론문학상수상작선정

'현대 시조의 불교학 탐구' 채택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학교 교수)의 "현대 시조의 불교학 탐구" 가 제36회 눌인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수상작 "현대 시조의 불교 학 탐구"(실천문학사, 2025)는 비평 적 시선이 주어지기 어려운 시조의 영역에서 나온 중요한 비평적 실적 이라는 호평을 얻었다.

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조와 불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는 찬사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저자가 자료들을 직접 찾아 새 의미를 부여하는 작 업부터 그 개괄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집중력을 보여줬다면서 2013 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권성훈 교 운 시대의 비평이 수행할 수 있는 슬기로운 존재 방식의 한 사례를

권성훈 평론가는 "한국현대문학 사에서 인상주의 비평으로 문학의 독자적 순수비평을 열었던 눌인의 평론적 위상을 새기며 평론가로서 앞으로의 비평적 여정을 생각하게 됐다"라며 "선배 평론가이자 연구 심사위원 만장일치 채택을 받은 자들이 걸었던 동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평의 길을 모색하고 글감 을 발굴해 이론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눌인김환태문학상은 한국 평론문학의 공로자이자 일제 강점 또한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한 시 기 순수문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 고 1930년대에 크게 활약한 눌인 김환태 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문학 긴 호흡으로 찬찬히 살핀 역작이라 적 삶을 오래 기리고자 마련된 것 으로, 무주군에서 주최하고 사)김 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한국문학평 론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상식은 매년 눌인문학제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11월 8일 전통생 활문화체험관에서 문학세미나, 김 수의 비평 작업은 힘든 시대, 어두 환태 묘소 참배, 김환태 문학비 탐 방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군의료원,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협약

####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3년간위탁운영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19일 군수실에서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 환)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 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의료인 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안군의료원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 일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2022년 9월부터 진안군의료원이 위탁 운영해왔으며 이달 25일자로 기존 위 경성질환 치유센터의 교육, 체험 프로 탁 기간이 만료된다.

격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해 운영 성과 와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진안군의

료원을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 리, 치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추진됐으며, 환경부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진안 고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재위탁 배경이 됐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도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적인 의료서 비스와 일상생활에 연계된 전북권 환 그램 등 진안고원만의 통합적 건강 관 이에 군은 지난달 22일 민간위탁 적 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가을배추 안정 생산 … 2억 투입

#### 원예특작분야신기술보급시업선정

임실군이 농촌진흥청 연계 전북특별 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26 년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신기술 보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 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개할 예정이다. 지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목표로 진행됐다.

안정 생산 기반 구축'을 주제로 사업 인 생산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 계획을 작성하여 최종 선정됐다.

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육묘장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배추 건전·우

량묘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무름병, 뿌 리혹병 피해 발생 억제를 통한 가을배 추 안정 생산을 위한 작부 체계 개선 을 진행한다. 김장 채소 수급 안정과 임실N양념사업단과 연계하여 아삭아 삭 김장페스티벌을 통한 임실 김장 채 소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여 농업 이번 공모사업은 농업인 현장 수요 소득 향상을 목표로 신기술 보급을 전

심 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배추 육묘 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묘를 생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임실군은 '기후변화 대응 가을배추 대응하고, 초기 활착률을 높여 안정적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작물의 2026년 관내 배추작목반을 중심으 안정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의



378회 임시회 본

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 대한다고 밝혔다. 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 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조성하기 위 생산 단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농업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됐다.

격 대비 20% 이상 상승한 품목의 경

장수군의회(의 우,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농가당 연 장 최한주)는 제 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김남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자재 회의에서 김남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거 의원이 발의한 나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군 필수농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재 지원 조례안' 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수군 농업 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필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은 농업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긍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가 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 김제국제후원회, 취약계층에 샤인머스캣 50박스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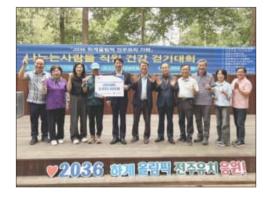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김제국제후 원회(회장 김성옥)가 지난 18일, 저소득 취약계 층에 전달해 달라며 샤인머스캣 50박스를 기 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 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 지에서 마련됐다. 후원된 샤인머스캣은 광활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 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옥 김제국제후원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 지만, 지역 주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 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순미 광활면장은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해 주시는 김제국제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 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사)나누는 사람들, '전주함께미(米)소(笑)' 나눔 동참

(사)나누는 사람들(대표이사 이순태)가 지역 사회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에 동참했다.

(사)나누는 사람들은 19일 건지산 오송제 일 대에서 9개 산하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직원 건강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

이와 함께 (사)나누는 사람들은 전주지역 독 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 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나누는 사람들 임직원들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은 현금 3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지역 7개 노인복지관 에서 모금된 기부금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독 거노인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 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 장수장애인탁구선수단, '도쿄퓨처대회'서은메달쾌거

#### 백영복선수은메달획득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둔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탁구선수단이 지난 10일부터 12 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뿐 아니라 장수군장애인체육회와 도쿄 퓨처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지역사회가 함께 쌓아온 훈련 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백영복 선수 위상을 높였다.

(ITTF)과 일본탁구협회가 공동으 줬다. 로 주최·주관한 권위 있는 국제대

회로, 세계 각국의 선수 170여 명 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가운데 거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 원과 응원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메달 획득 는 남자 단식과 혼합복식에서 각 은 장애인 선수들의 자신감과 사 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장수군의 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도 큰 자긍심을 안겨주며 지역 체 '도쿄 퓨처대회'는 국제탁구연맹 육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정천면, 수몰민 망향제 거행

#### 용담댐 수몰민 애환 달래

진안군 정천면 어촌계 망향제 추 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 정천체 련공원에서 수몰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천면 수몰민 위로 망향제를 개최했다.

이번 망향제는 용담댐 수몰민들 의 애환을 달래고, 면민의 무사안녕 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 정천면은 용담댐이 완공 되면서 약 9.78㎢의 면적이 수몰됐 고, 이로 인해 17개 마을 499세대 738명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 아픔

을 겪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실향민 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아픔을 함 께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장한수 추진위원장은 "수몰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살던 고향산천 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는 분이 많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애 환을 달래면서도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민 정천면장은 "정천을 그리 워하는 수몰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제이디로지스등2개기업,남원시에장학금전달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제이 학 중인 취약계층 아동 5명을 선 디로지스(대표 이상욱), (사)위드 정하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 인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는 19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 남원시장실에서 최경식 남원시 장학금은 학생들의 교육 및 자기 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발비로 사용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 한 '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대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겠다"라고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남원시 말했다. 가 협력하여 지역 내 초중고에 재

㈜제이디로지스 이상욱 대표는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작은 디 이번 '드림 장학금'은 복지 사각 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 삼례읍지사협, 어르신 500명에 짜장면 나눔

의체(공동위원장 오상영, 임동빈) 는 19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 됐으며 식사와 함께 어르신들게 서 지역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공경의 마음을 전달했다. '2025년 사랑의 짜장면 나눔 및 효 잔치'를 가졌다.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에서는 삼례지역의 어르 란다"고 말했다. 신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고고

완주군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 장구, 생활체조, 민요 등 공연과 노 래자랑 등 흥겨운 분위기로 진행

오상영 공동위원장은 "500인분 의 짜장면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면 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도 참 서 나눔이 기쁨을 느꼈다"며 "오 석해 어르신들과 따뜻한 인사를 늘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 신들께서 즐겁고 행복하셨기를 바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 농협발전상생협의회, 농심천심 운동 추진 결의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19일 관 내 5개 농축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농협발전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군지부 '텃밭 정원' 앞에 서 농협이 추진하는 범국민 '농심천심(農心天 心) 운동` 추진을 결의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 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 살리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내달 17일부터 3일간 개최 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및 순창 농축산 물 홍보, 쌀 소비 촉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정원 전파를 비롯한 '농심천심 운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종철 지부장은 "농심천심 운동으로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군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관내 농축협과 함께 지역사회에 `농심천심 운 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 전주서워시니어클럽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전주서원시 니어클럽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전주시민 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서 기로 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김경옥)은 19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 관우 전주시의회의장, 조범기 한국시니어클 럽협회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및 전라북도 내 시니어클럽 관장,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약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 념행사'를 개최했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20주 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10년 뒤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지역사회가 함께 성 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2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올바른<mark>안전</mark>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세요!

### 차 타면 꼭 지켜아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착용해야 해요!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꼭 착용 해 주세요!



#### 〈一事一言〉

JBT)



#### 김건희가 살았던 '타인의 삶'(1)

송요훈

언론인

김명신은 김명신으로 사는 게 싫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돋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무대 위의 소품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배우 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김명신이 라는 이름을 버리고 얼굴을 바꾸 고 학력과 경력을 세탁하여 이쁘 게 색칠하고 포장을 다시 하였다. 오직 돋보이고 싶어서. 김명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꿈꾼 죄, 그게 죄라면 죄였다.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가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동독이 무 대이고 사찰기관에 근무하는 비 밀경찰이 반체제 인사인 유명한 극작가를 사찰하다 그의 삶에 감 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주인공인 비밀경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원하는 진술을 받아 내기 위해서라면 고문도 마다하 지 않는 냉혹한 인간인데, 극작가 의 집을 도청하며 삶의 내밀한 곳 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차츰 감화 되어 위기에 처한 극작가를 몰래 돕는다. 그 덕분에 덫에 빠질 뻔 한 극작가는 목숨을 구하지만, 주 인공인 비밀경찰은 극작가를 도 운 게 발각되어 하층계급으로 추 락한다. 하지만 인간성을 되찾은 그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묻어난 다. 그래서 해피 엔딩이다.

김건희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영화 '타인의 삶'을 꺼낸 건, 김건 희와 관련한 뉴스를 볼 때마다 영 화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 론 김건희의 삶과 영화 속 비밀 경찰의 삶은 완전 딴판이다. 하지 만, 김건희는 김명신이 아닌 타인 의 삶을 동경했고 영화 속의 비밀

경찰은 타인의 삶에 감화되었다 는 점에서 '타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 하겠다. 영화 속의 비밀경찰은 인간의 얼굴을 되찾아 해피 엔딩 이지만, 김건희는 성형한 얼굴로 가식의 연기를 하며 김명신 아닌 타인의 삶을 흉내 내다 결국 철창 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름도 얼굴도 바꾼 김건희는 셀럽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검사 처럼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를 즐겼던 것 같다. 그러다 검사 윤석열을 만나 결혼을 하여 검사 부인이 되고 검찰총장 부인이 되 었다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초고 속 신분 상승을 누렸으니 매 순간 이 짜릿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 선후보 시절에 허위 경력이 드러 나 위기를 맞긴 했으나 대중의 동 정심을 자극하려는 어색한 연기 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자회견에 도, 시선 돌리기와 물타기로 여론 조작에 나선 '친윤 언론'의 적극 적인 협조에 힘입어 유야무야 넘 길 수 있었다.

그랬던 김건희에게선 늘 '타인' 이 겹쳐 보였다. 허위 경력을 사 과하던 기자회견에선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막장 드라 마의 여주인공이 겹쳐 보였고, 〈 서울의 소리〉이명수 기자와 통 화하던 김건희에게선 남자 손님 이 무슨 말을 하든 척척 받아넘기 는 능란한 화술의 룸싸롱 마담이 겹쳐 보였고, 최재영 목사에게서 디올백 받던 김건희에게선 허영 과 권력에 취한 오만한 사모님이 보였다.

'영부인' 김건희의 변신에는 거

침이 없었다. 순천만 정원에서 고 개를 살짝 뒤로 돌리고 요염하게 찍은 사진에선 스물 갓 넘은 모델 이 겹쳐 보였고, 캄보디아에서 아 픈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에선 인 기에 존경까지 받던 여배우 오드 리 헵번이 겹쳐 보였고, 영국을 방문하여 왕실 마차를 탄 김건희 에게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 라가 겹쳐 보였으며, 느닷없이 한 강 다리에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현지 지도를 하던 김건희에게선 북녘의 최고 존엄이 겹쳐 보였다. 그 모두가 김건희가 흉내라도 내 보고 싶었던 동경과 선망의 대상

이던 '타인'이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 년이 조금 지난 2023년 9월, 〈오 마이뉴스〉에는 '고등학생이 손꼽 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 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통령 윤석열에겐 잘못한 게 전부이지 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업적이 있을 것이니 그걸 한번 찾 아보자는 반어법의 기사였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 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란 걸 몸소 보여준 거 라며,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 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니 서울 법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 고,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 이 얄팍한 법 지식을 활용해 사회 적 약자와 정적을 괴롭히는 자들 이라는 '법꾸라지의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의 공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 고 했단다.

지금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건, 기성세대가 서울대 법대를 나 오고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최고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 준 결과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들 의 진단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 째의 통찰에선 고등학생들의 예 리한 통찰에 박장대소하였으나 민주주의의 취약함과 어른들의 '묻지마 투표'를 간파한 세 번째 와 네 번째에선 몹시 부끄러워 얼 굴이 화끈거렸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꾼 김건희 는 '타인의 삶'을 살기만 한 건 아 니었다. V0 김건희는 V1 윤석열 을 조종하여 법 위에 군림하며 특 권과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타 인'들의 행태를 가감 없이 투명하 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일반 대중 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테면 이런 거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 떠나는 전북, 전시성 행정으론 못 막는다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 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 년은 매년 평균 8천명씩 고향을 떠났다. 그 결과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 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 으며 절반 이상은 이미 '고위험 단계'에 놓였다. 청년의 이탈은 곧 지역의 소멸 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와 행정 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점이다. 청 년이 해마다 고향을 떠나는데도 근본 대 책은 뒷전이었고 뒤늦게 전시성 대책을 내놓고는 '청년 친화'라는 수상 실적만 내세우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기는 어

전북도가 내세운 정책은 일자리·주 거·교육·복지·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른다고 강조한다. 면접수당, 직무체 험, 임대보증금 지원, 활력수당 지급 등 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대 부분 단기적이거나 보조 성격일 뿐, 청 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근본적 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일자리 없는 고향에서 몇십만원 지원금 받는다고 남 지 않는다. 정치권과 행정이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지 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결과 가 지금의 청년 유출 사태다.

또한 청년 의견을 반영한다며 청년정 책협의체나 청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 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 하다. 정작 청년들은 여전히 "우리의 목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정 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켰다는 외 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 권한과 예산 결 정권은 여전히 관료와 정치권에 머물러 있다. 보여주기식 청년 참여는 오히려 청년들의 불신만 키운다.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 회피다. 지역 정 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청년을 위한 전 북'을 외쳐왔지만 청년 유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청년정책을 발표할 때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정작 실행과 성과는 뒷전이다. 전북도가 최근 수상한 '청년 친화헌정대상'도 청년들의 실제 체감과 는 거리가 멀다. 외부 평가로 치장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청년들이 "전북에 남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청년정책은 화려한 계획이나 단발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이 떠나 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 정치와 행정은 그동안 책임을 미뤄왔고 그 대가가 지역 소멸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라도 도정과 정치권은 청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산업과 교 육, 문화,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이 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 면 청년 유출은 막지 못한다.

청년 없는 전북은 존재할 수 없다. 전 시성 수상 실적이나 단발성 지원책으로 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통감하고 청 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내놓 는 일이다. 전북 청년의 미래를 지켜내 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 자, 행정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 ▲ 오늘의시

### 너의 하늘을 보아 / 박노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 가보상금을 거부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작품을 출간했다.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당우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석포리)



송천지시- 010-5242-369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전주지사 010-9845-4113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중앙지사 010-9678-427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맛과 정성을 담은

# 남원 사회적경제 추석 명절 선물세트

#### 지역 특산품 담은 1~6만원대 선물세트 50여종

폭염을 견뎌낸 들녘이 황금물결을 준 비하는 시절, 오곡백과 풍성한 추석이 다가온다. 2025년 한가위를 맞아 남원시 에서 특산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지리산 자락 청정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믿을 수 있고, 지역을 살리는 상생의 가치가 담겨있어 소중한 이들에게 정성을 전하기에 안성 맞춤이다.

#### 명가의 솜씨를 그대로 담은 남원 추어탕과 김부각

남원의 대표 향토 음식 김부각은 활용 도 높고, 저장성도 좋아 인기있는 선물 아이템이다. 사회적기업 (유)하이오백은 지리산 해발 500미터 청정지역에서 김 부각을 생산한다. 3대째 내려온 비법으 제품이다. 로 만든 김부각은 도톰한 찹쌀꽃과 현미 유가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하 리산품은 남원추어탕'(세트 35,000원)은 제품인 '누른당 바사삭' 시리즈는 현미 적기업 (유)메밀꽃피는 항아리는 연간 1 국내산 재롱이 도토리를 갈아서 떫은맛 절 선물로 꾸준한 스테디셀러다. 여 '숲'부각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미주와 호주 대륙 수출로도 인기 만점 조각 부각(22,000원)과 통김부각(25,000 제품이다. 간편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로 배합하여 얇고 아삭한 쌀과자 식감을 밀부각(30,000원)도 별미다.

남원김부각협동조합은 프리미엄 원 있다. 재료로 만든 '한선생 김부각'을 선보

였다. 유기농 지주식김에 남원산 고구 626-7722) 마풀을 발라 NON-GMO 유채유로 튀 겨내고, 가마에서 직접 구운 황토소금 과 천연발효조미료로 감칠맛을 더했 다. 단아한 패키지에 담아낸 통김부각 세트(24,000~40,000원)는 선물용으로 베스트셀러다. 한선생 부각 혼합세트 (24,000~38,000원)는 스낵으로 즐기기 좋은 미니 김부각과 찹쌀풀을 입혀 튀긴 황태껍질부각, 부드러운 생다시마 부각 이 어울려 풍성한 구성이 돋보인다.

(남원김부각협동조합 063-625-7111)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은 미꾸리 양식 특허기술을 보유한 33년 경력 수산 종묘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 추어 전문기업이다. 100% 국내산 원재 료로 최상급 미꾸라지와 남원산 고춧가 루, 들깨, 한식 된장, 고랭지 시래기를 넣 어 맛을 낸 추어탕은 레토르트 포장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남원 현지의 손 맛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재현할 수 있는

추어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 '지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063- 낄수 있다.

#### 명절 다과상과 가족모임에 제격, 건강한 주전부리와 전통주 세트

지리산 둘레길 초입 주천면에 위치 한 (유)웅치마을영농회는 직접 튀긴 곡 물 튀밥에 견과류를 버무려 수제 강정과 에너지바를 만든다. 곰재강정선물세트 (30,000원)에는 들깨땅콩강정과 옥수수 강정, 찰현미강정, 참깨쌀강정 등이 골고 루 들어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꽃으로 만든 메리골드와 ABC 티백차(세트 20,000원) 는 집중이 필요한 수험생,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미량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국내산 쌀에 지리산 홍시를 더해 전통 방식으로 고아 낸 홍시 조청세트(25,000원~40,000원)는 꿀이나 잼 대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마을기업 웅치마을영농회 / 063-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은 유기가공 인증을 획득하여 100% 유기농 쌀로 수 제 누룽지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이다. 신 누룽지에 약콩과 귀리, 보리를 황금비율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 010-5424-9335)

마을기업 ㈜비즌양조는 청년들이 만 든 수제맥주 선물세트(15,000원/4병입) 를 선보였다. 바이젠과 페일에일, 라거, 스타우트 4종으로 개성이 살아있는 풍 성한 향과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 다. 맥주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전통소주 '화동원(2병 40,000원)'은 남원 금지 평 야에서 생산한 쌀을 감미료 없이 삼양주 기법으로 720시간 숙성한 42도 명품 증 류주이다.

(비즌양조 063-635-8627)

#### 남원시가 보장하는 스타기업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남원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사 회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 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2023년부터 매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스타기업'으로 지정한다.

남원시 첫 스타기업 영예를 안은 사회 백여톤의 남원쌀을 수매하여 가공, 건강 한 떡 간식을 만드는 기업이다. 모든 제 자포니카 민물장어를, 메기매운탕(세트 선물세트(25,000원)는 황치골에서만 생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다. 대표 (사회적기업 하이오백 063-636- 30,000원)은 정읍산 원물을 사용하여 흙 산하는 지리산 산채누룽지를 맛볼 수 있 제품은 모짜렐라 치즈 가래떡에 매콤달 냄새 없이 진하고 칼칼한 맛을 느낄 수 고, 발아현미조청세트(35,000원)는 쌀눈 콤한 양념이 포함된 '치즈몽땅떡볶이세 의 영양분이 살아있는 은근한 단맛을 느 트'와 구워먹는 치즈떡바, 퓨레(바질토 마토, 고구마, 흑임자)를 품은 달떡 시리 건강한 먹거리다. 도토리묵, 특제 묵과

#### [문의처]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팀  $(063-620-5637\sim5638)$ 

사회적경제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wonse

주문 및 택배 마감일: 9월 26일

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제 우무채로 별미세트 5종을 선보인다. 품을 콜라보한 달빛치즈세트와 낭만캠 핑세트, 온기가득한끼세트 등을 출시했

(각 세트 39,000원/ (유)메밀꽃피는항 아리 063-625-9198)

전통 수제 방식으로 묵을 만드는 '지리 산맑은물춘향골영농조합'은 3대째 이어 국인의 밥상'에 출연한 명가 기업이다. 을 우려내고 가마솥에 끓여 만들어 일반 다. 또한 건조묵을 활용한 즉석 잡채, 우 눈길을 끈다. 무채 밀키트는 추억의 맛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부터 어린이들까지 두루 만족할 8788)

(16,000원~43,000원 / 지리산맑은물춘

향골영농조합/ 063-636-6111) 사회적기업 지리산처럼영농조합은 운 봉 고랭지에서 직접 참깨, 들깨를 재배 하고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어 품질 좋

은 깨를 수매하여 착유한다. 고소한 향이 살아있는 햇들기름과 생 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고, KBS '한 들기름, 들깨가루와 볶음참깨를 한 박스 에 모은 프리미엄 세트(52,000원)는 명

생들기름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섭 묵이 아니라 '참묵'이라 부른다. 국내 유 취할 수 있도록 1회용 스틱으로 가공한 원)이 있으며, 제주산 메밀을 첨가한 메 있는 장어탕(세트 35,000원)은 국내산 살렸다.(28팩 49,500원) 유기농 누룽지 품을 15일 이내 도정한 햅쌀로 만들어 명 한정식집에 납품할 만큼 쫀득하고 도 '오메가3 선물세트'(18,000원)는 바쁜 직 토리의 쌉쌀하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있 장인과 수험생을 위한 건강 아이템으로

(지리산처럼영농조합 / 063-636-

/남원=정하복 기자

